

소중한 인연

김희섭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이唇이 막 지났다고는 하지 만 겨울의 찬바람이 옷깃 속에 묻어나던 지난 2월 중순이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눈에 두 손을 꼭 잡고 유난히도 밝게 웃으시며 봉사

자들을 반겨주시는 부부가 인상 깊게 다가왔다.

부인은 남편이 5년여 동안 투병을 해오면서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기에 지난해 12월 중순, 육순에는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려고 계획했었다고 했다. 그런데 생신 이틀 전 폐혈증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고 1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들던 환자는 기적이 바로 본인에게 일어났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었다.

환자는 전기공사업체를 30년 넘게 운영해오다가 발병을 하게 되자 정리 했는데 건강했을 때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환자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으로 당신이 떠난 후에라도 두 자녀와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는 데려가실 일만 남았는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입원 다음날, 부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목욕하기를 원했다. 환자는 목욕을 무척 좋아하는데, 다른 병원에 두 달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물수건으로 닦기만 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씻고 싶다고 했다. 그날 부인과 함께 목욕을 시켜드리고 발마사지도 했는데, 허반신이 마비되어 느낌이 없지만 감각이 살아날 것

같다며 무척 좋아했다. 입원한지 15일째 되던 날, 늘 환자 곁을 떠나지 않던 부인이 불일이 있다며 내게 환자와 함께 있어 주기를 청했다. 그런데 환자가 혼자 주스를 마시려다가 다 쏟는 바람에 젖어버린 환의와 시트를 갈아드리게 되었다. 그러자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제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간병하는 부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만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제껏 밝게 웃으시던 모습과는 달리 그 말씀 속에서 쓸쓸함이 짙게 묻어났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단념하는 듯한 그 말이 마음에 찡하게 와 닿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봄비가 차갑게 느껴지는 초봄, 엿저녁부터 내리는 가는 빗방울이 병실 창가에 어른거린다. 환자는 신부님께서 주신 묵주를 두 손에 꼭 쥐 채 누워있었다. 부인은 내게 남편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더 수척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자꾸 슬퍼진다고 하였다.

3월의 셋째 토요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지 3개월여 만에 집에 다니러가셨다. 병원에서 포기해 집에 온 게 아닌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몹시 불안해하였다. 부인은 가정에서는 간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의사선생님 퇴원 이야기를 하셔도 되도

록이면 퇴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중에 하루 외출을 다녀오게 된 것이다. 나는 불만을 토로하는 부인에게 집에 가서 환자와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퇴원을 권유하신 게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 보았다.

3월 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집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환자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어렵게 퇴원을 했다.

퇴원 3일 뒤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전화를 했다. 부인은 반가워하며 입원해 있을 때와는 달리 집에 와서 지내다보니 남편이 자녀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감사해한다고 말했다. 퇴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속이 많이 상했는데, 남편과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되었음을 그제야 알았노라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게도 일주일뿐이었고, 환자는 폐렴으로 다시 입원했다.

4월 중순, 병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창밖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흰 눈꽃이 나뭇가지마다 수북이 내려앉은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사이, 만개한 개나리와 자목련이 어우러진 꽃길로 환자 부부는 옆 자리에 입원해 있는 환자 부부와 함께 산책 준비를 했다.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산책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맑고 따뜻해 산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여러 환자들과 함께 보호가, 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밀고 당겨 언덕길을 올라 꽃무리 속에 묻히자, 환하게 웃으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겨워하는 부부의 모습을 활짝 핀 벚꽃과 함께 사진으로 담아 드렸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 제대로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던 부인이었기에... 이 날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온 것을 소원 성취했다고까지 말하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부인은 건강할 때는 몰랐던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큰 소망이 될 줄 몰랐다고 하였다. 그 날 이후 하루에 두 번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봤으면 하는 환자의 소망은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부인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워 간이 쏠아붙는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나는 남편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다음날 부인은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남편에게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은 아내를 마음이 여리며 힘든 세상살이 중에도 때가 묻지 않은 남편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위암 수술하기 전에는 바깥일에 매달려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보내놓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다. 그분은 입마누엘 방으로 여러 번 오가다 4월 마지막 날,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되어 가셨다.

신부님은 장례미사에서 고인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진실 되게 본분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니 그 모습이 좋은 표징이 되어 가족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용산 베다니아 집에 고인을 모시고 돌아서면서 부인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이 남편과 함께 한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호스피스 병동 종사자들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부인은 무엇보다도 남편이 4개월 전에 임종하는 줄 알았는데, 4개월 반이라는 귀한 시간을 더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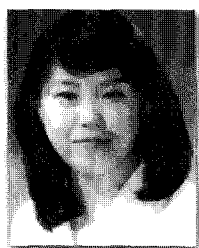
사별 이후 49일이 되는 날 저녁, 부인에게 전화를 했다. 어떻게 잊지 않고 전화를 했느냐고 반가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고인이 간 지 1년 후 아들이 장가가던 날, 한 아름의 장미를 들고 찾아간 봉사자들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 같다고 반가워했다. 그리고 우리의 인연이 그냥 지나치는 인연이 아니란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지개 병동』-대구 파티마병원을 다녀와서

박지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간호사



싱 그렇게 시작
되어진 나의
2008년 6월은 다른 어떤 해
보다도 많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호스피스
단기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접하게 된 새로운 사람과

의 만남, 새로운 경험 때문이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호스피스 팀에서 주관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4년 동안 진행되어져 왔다. 그 동안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나 스스로도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의 내용과 강사님들의 열정에 정말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호스피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듣기 위해 온 간호사, 자원봉사자, 수녀님, 두 달 전 남편을 암으로 보내드린 뒤 호스피스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분, 이런 모든 분들과의 만남 역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두 달간의 호스피스 단기교육 이론과 실습을 끝낸 후 대구 파티마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김혜자 아가다 수녀님은 대구 파티마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은 원예요법이 잘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인치료센터에서는 여건상 조금 어려운 원예요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가보고 싶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다른 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간다는 생각에 견학을 가기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

작했다.

견학을 가는 날 아침. 화창하고 맑은 날씨 때문인지 마음은 더욱 더 부풀었고, 함께 가는 동기 교육생들은 서로서로 챙겨주기 위해 음료수, 떡, 과일을 준비해왔고 견학을 간다고보다는 소풍을 가는 것만 같았다. 음료와 떡을 먹으며 한껏 푸르름을 머금은 7월의 산을 내 눈과 마음에 가득 품으며 떠난 지 2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대구 파티마 병원에 도착하였다.

‘무지개 병동’ 대구 파티마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의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무지개모양과 별들이 그려져 있는 병동 안내문과 수녀님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다.

무지개 병동은 임종실 1개, 2인실 2개, 5인실 2개로 총 14병상의 삶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곳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실, 상담실, 기도실, 임종실, 호스피스병동 전용 쉼터 공간, 미니 도서관 등 모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던 환우가 기증해서 만들었다는 온돌로 된 가족실은 오랜 간병생활로 지친 보호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 마음에 따스함이 전해져 왔다.

대구 파티마 병원의 무지개병동은 1992년 3월 산재형 호스피스로 시작하여 2000년 에 병동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지개병동의 작은 기도실에서 병동 안내를 받은 뒤 대구 파티마 병원의 자랑거리인 원예 요법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동화 속 작은 정원을 읊

겨 놓은 듯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는 “우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고 한 동안 그 곳의 광경에 넋을 잃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을 위해 마련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사가 나왔다.

원예요법의 공간은 호스피스 환우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쉼터공간으로 수녀님, 간호사들이 원예요법을 배워 환우들과 계절에 따라 다른 꽃과 식물을 키운다고 하였다. 우리가 방문 했을 때 원예요법실에는 제라늄, 방울토마토, 부레옥잠화 등 갖가지 여름 식물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꽃과 식물들을 환우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원예요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랑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꽃과 식물들을 눈으로 보고, 좋은 향기를 맡고, 돌보는 환우들이 더 없이 행복해 보였으며 아픈 자신의 몸도 돌보기 힘든 환우들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보며 이게 바로 진정한 호스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우개인마다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휴대용 TV와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환우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음향장치, 호스피스환우를 위한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이 따로 있어 봉사자들이 주 1회 식사대접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환우들과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마련된 음식을 나누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여 아무런 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임종만을 기다리는 곳이라 생각하여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대구 파티마 병원

의 무지개 병동 견학과 이번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라는 이 아름다운 말은 두려움, 공포가 아닌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라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며 세상의 빛을 보듯이, 또 다른 한 생명이 삶을 마무리하며 천천히 걸어 갈 때에도 편안히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스피스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만 쉽게 생각하고 왔던 견학에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호스피스병동에서 일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 힘든 날은 어쩌다 한번 뿐일 것이고 많은 곳 구석구석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오늘이 힘들다면 내일은 더욱 밝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호스피스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이번 호스피스 교육과 여행을 함께 한 선생님들 파이팅!

대구 파티마 병원의 무지개 병동, 그리고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마지막으로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모두 파이팅!!

